

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베트남, 한국 진출희망 창업기업(스타트업) 열기로 가득

- 베트남에서 동남아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투자유도발표 대회 ‘영테크(Young & Technology)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열려
- 3개 수상팀은 국내에서 보육(엑셀러레이팅), 정착금, 비자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지시간) 22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컨벤션 센터(NCC)에서 동남아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피칭) 대회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베트남 등 동남아의 젊고 우수한 창업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지원하여 아시아 최고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사업(비즈니스) 중심지(허브)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에서 창업하려는 인재들이 많은 나라로 국내에서 매년 개최하는 외국인 대상 창업경진대회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올해 신청팀 총 1,924개 중 348개로 신청팀 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대회 참가팀들은 동남아 국적을 가진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사전접수를 통해 총 20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인공지능, 블록체인, 교육 기술(에듀테크) 등 신산업, 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다.

국내 벤처투자사(VC)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영예의 1등은 디지콘(Digicon)(베트남, AI 기반 동영상 쇼츠 제작 플랫폼)이 차지했고, 2등 앤앤이 이노베이션(N&E INNOVATIONS)(싱가포르, 음식물쓰레기 업사이클링 향균 기술개발), 3등 엠엘테크 소프트(MLTech Soft)(베트남, AI 기반 소비자 재고관리 플랫폼)이 각각 수상했다.

이들 수상팀에게는 ‘2023 케이(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본선 진출권을 부여, 오는 8월 한국에 입국하여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국내 창업기획자의 보육, 정착금, 비자 취득 등을 지원하고, 11월 전 세계 63개 팀이 참여하는 발표대회에서 상위 5개 팀에게 주어지는 총상금 3억 4천만 원(27만 달러)을 두고 경쟁한다.

이영 장관은 시상식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창업할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나라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한민국(코리아)’를 향해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국내 기업들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회 현장에 참석하여 수상자 등 동남아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을 격려했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기술창업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640)
		담당자	사무관	김완수 (044-204-7644)

